

일본 경제 동향_2015년 2월

(이슈: 일본의 주가상승 요인과 전망)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경제 동향	2
2. 엔저효과에도 무역적자 확대	6
3. 엔저 지속하에 고주가·금리반등	9
4. 2014년 해외직접투자 감소	11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최근 일본의 주가상승 요인과 전망	12
2. 일본정부, TPP 수입한도 운용 검토	14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6
1. 1월 대일 무역적자 축소	16
2. 2014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감소	19
V. 참고 자료	20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
2. 주요 경제 일정	22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경기동향지수(2010=100)	-	-	-	-	-	-	109.2	110.7	-
GDP증가율(연율,%)	1.6	0.04	5.5	△6.7	△2.3	2.2	-	-	-
국내투자(조엔)	민간설비투자	66.0	69.5	21.4	16.3	17.7	16.2	-	-
	공공투자	23.0	24.5	6.6	4.2	5.2	7.3	-	-
해외직접투자(조엔)		13.2	12.6	2.6	2.0	2.1	4.9	1.5	1.4
소비자물가	전기비	0.4	2.6	0.2	2.3	0.3	△0.1	△0.2	△0.2
상승율(%)	전년동기비	0.4	2.6	1.3	3.3	3.2	2.7	2.5	-
실업율(%)		4.0	3.6	3.6	3.6	3.6	3.5	3.4	-
수출(조엔)		69.8	73.1	17.5	17.6	18.3	19.8	6.2	6.9
수입(조엔)		81.3	85.9	22.4	20.2	21.2	22.1	7.1	7.6
무역수지(조엔)		△11.5	△12.8	△5.0	△2.6	△2.9	△2.3	△0.9	△0.7
경상수지(조엔)		3.3	2.6	△0.9	0.3	1.7	1.4	0.4	0.2
환율	달러	97.7	105.8	102.8	102.1	104.0	114.3	116.2	119.4
	원화(100엔)	1,123	996	1,039	1,008.2	987.3	950	943	925
금리(10년물,%)		0.72	0.55	0.63	0.60	0.53	0.44	0.47	0.38
주가(닛케이)		13,651	15,460	14,958	14,655	15,562	16,660	17,179	17,542

주: (p)는 1차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수출주도의 상승국면

- ‘14.12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0.7로 전월대비 1.5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상승율은 계속 마이너스

- ‘14.12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0.2%

□ (무역수지) 무역수지적자는 1.2조엔으로 확대, 31개월 연속 적자

- ‘15.1월 수출은 6.1조엔 수입은 7.3조엔

□ (환율) 엔화 환율은 엔저 가속

- ‘15.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8.2엔으로 전월대비 1.0% 엔고

* ‘15.1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20원으로 전월대비 0.5% 엔저·원고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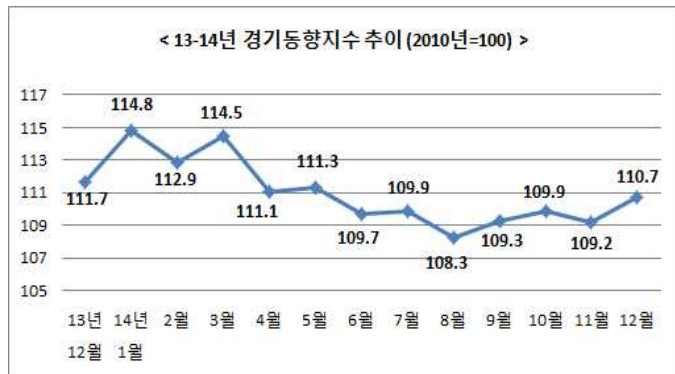
□ (경기기조 판단)

○ 수출주도의 상승국면

- 2014년 12월 경기동향지수는 110.7로 전월보다 1.5p 상승

- 경기동향지수 관련 11개 지표 중 생산, 판매 등 9개 지표가 플러스를 기록

* 일본 내각부가 조사한 경기체감도도 2014년 12월, 2015년 1월 모두 전월을 상회



자료 : 내각부

- 수출품의 생산 확대로 수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 휘발유 가격인하 등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등이 주된 요인

□ (전 망)

○ 앞으로도 경기회복세는 이어질 전망

- 고용 및 임금소득의 개선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가하락, 경제대책의 효과 등이 경기회복 요인으로 가세
- 다만, 소비력이 아직은 약한 편으로, 임금인상의 확산 여부가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기회복의 지속력을 좌우
- 설비투자도 생산·수익의 회복을 배경으로 회복
- 수출은 완만하나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엔저효과의 본격화로 증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

<GDP>

- 일본 내각부가 1월16일 발표한 2014년 4분기 실질 GDP성장율은 전기비 0.6%, 연율 환산으로 2.2%로 3분기 만에 플러스를 기록
- 수출과 소비가 GDP성장에 기여했으나 성장률은 완만한 경기회복 속도를 반영하여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음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전기비 2.7% 증가하여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함에 따라 대 GDP기여도가 0.2%p로 3분기 연속 플러스
 - 개인소비는 전기비 0.3% 증가, 2분기 연속 증가
- 명목 GDP는 전기비 1.0%, 연율로는 4.5% 증가
 - 물가동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비 2.3% 상승, 전기에 비하여 상승폭이 확대
 - 임금소득은 명목기준으로 전년동기비 2.2% 증가했으나, 실질기준으로는 0.5% 감소, 4분기 연속 마이너스
- 한편 2014년 실질 GDP성장율은 0.04%로 2013년의 1.6% 수준을 크게 하회
 - 소비세 인상 영향으로 소비가 침체했으나 공공투자가 확대되어 명목GDP는 1.7% 증가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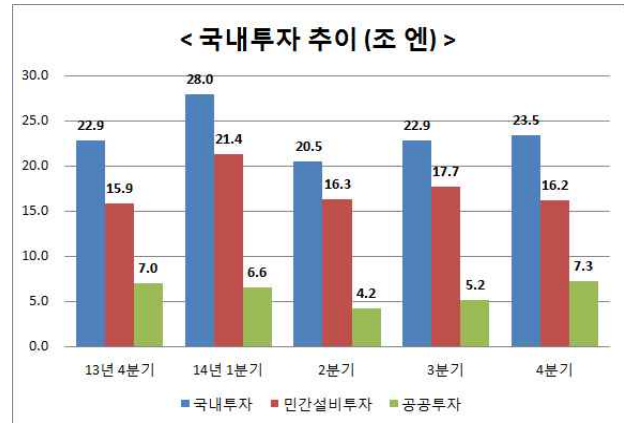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3		2014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1.8	1.6	0.4	△0.4	1.3	△1.7	△0.6	0.6
전기비연율			1.5	△1.4	5.5	△6.7	△2.3	2.2
전년동기비			2.2	2.3	2.4	△0.4	△1.4	△0.5

자료: 내각부

<국내 투자>

○ ‘14년 4분기에는 수출과 소비에 비해 민간설비투자는 부진

- 민간설비투자는 실질기준으로 전기비 0.1% 증가(명목기준:4.7% 감소), 3분기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증가율은 약함
- 공공투자는 실질기준으로 0.6% 증가(명목기준; 28.2%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 민간설비투자와 공공투자를 합한 국내 투자는 실질기준으로 전기비 2.2% 증가(명목기준으로는 3.6% 증가)



자료 : 내각부

□ (민간설비투자)

- ‘14.4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16.2조 엔, 국내투자의 69%를 차지
- 향후 소비세 증세의 영향이 감소되는 가운데 엔저, 유가 하락 등을 배경으로 한 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생산 및 기업수익 회복 등으로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 ‘14.12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8.3% 증가한 가운데, 2개월 연속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증가

□ (공공투자)

- ‘14.4분기 공공투자는 7.3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31%를 차지
- ‘14년 12월에 발표된 3.5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 중 0.9조엔 정도가 공공투자로 지출될 예정이며, 효과는 2015년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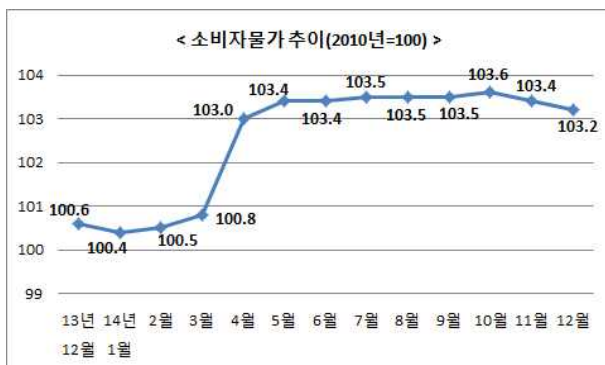
□ ‘14.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0.2%

- ‘14.12월 소비자물가상승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103.2로 전월 대비 0.2% 하락
-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상승하였으나,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효과를 2.0%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코어코어 CPI)은 0.5%로 전월보다 둔화
 - 2014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비 2.6%로 2년 연속 상승
- 당분간은 유가하락과 엔저의 영향으로 횡보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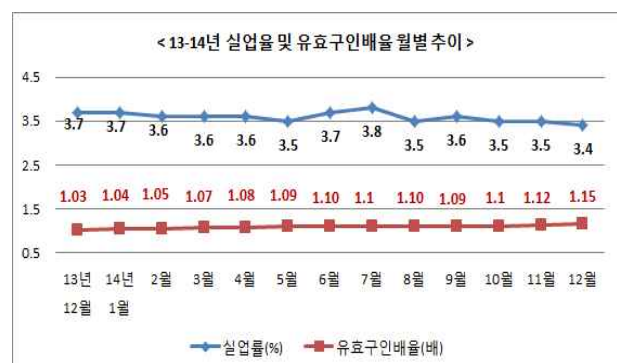
<실업률>

□ ‘14.12월 실업률은 3.4%

- ‘14.12월 완전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낮은 3.4%로 17년 4개월 만에 낮은 수준
 - 노동력 인구와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완전실업자 수는 감소
 - 도매·소매·의료·복지 분야의 취업자 및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실업률 저하에 기여
- ‘14.12월 유효구인배율은 1.15배로 11월보다 0.03p 상승, 22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
 - 일본 총무성은 앞으로도 고용의 개선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엔저효과에도 무역적자 확대

□ (중 합) 무역수지는 31개월 연속 적자

- ‘15.1월 무역수지는 1.2조 엔 적자로 전월보다 확대된 가운데 31개월 연속 적자 지속
 - 적자폭 확대는 수입이 전월의 7.6조 엔에서 7.3조로 감소했음에도, 수출이 전월의 6.9조 엔에서 6.1조 엔으로 감소 폭이 컸던데 따른 것임
 -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4,437억 엔에서 7,363억 엔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7,385억 엔에서 5,454억 엔으로 크게 축소
- 다만 수출의 경우 전년동월비로는 17% 증가, 수량기준으로도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어, 엔저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15년 1월 일본의 수출입 (조 엔, %) >

	2014.12월			2014.1~12월		2015.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6.9	12.9	11.3	73.1	4.8	6.1	17.0	-11.6
수 입	7.6	1.9	7.1	85.9	5.7	7.3	-9.0	-4.0
수 지	-0.7	-49.5	-22.2	-12.8	11.4	-1.2	-57.9	71.4

자료 : 재무성

□ (수 출) ‘15.1월 수출은 금액·물량 모두 전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

- ‘15.1월 수출은 전월보다 11.6% 감소한 6.1조 엔, 전년동월대비로는 17% 증가
 - 수출 물량도 전월보다 9.5%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11.2% 증가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부품, 유기화합물 순이며, 전월과 비교하여 원동기 대신에 유기화합물이 포함
 - 5대 수출품목 모두 전월보다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자동차부품의 수출 감소폭이 17.5%로 가장 크며, 이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전자부품, 유기화합물 순으로 감소폭이 큼

- 주요 수출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도 모두 감소한 가운데, 對 중국수출의 감소폭이 17.8%로 가장 컸으며, 이어 미국, EU, 한국, ASEAN, 대만 순으로 감소폭이 큼
 - 對 한국 수출은 7.6% 감소
- 앞으로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엔저의 수출물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2015년 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4.12월			2014.1-12월		2015.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0,205	12.5	8.0	109,197	4.9	8,783	12.7	-14.0
2	철강	3,765	11.7	18.9	39,586	4.4	3,364	10.0	-10.7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3,521	17.8	6.1	36,908	3.9	3,191	24.1	-9.4
4	자동차부품	3,260	5.7	16.5	34,751	-0.0	2,689	6.3	-17.5
5	유기화합물	2,238	1.8	12.7	24,416	-3.1	2,086	-15.5	-6.8

자료 : 재무성

< 2015년 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4.12월			2014.1-12월		2015.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3,980	23.7	15.7	136,488	5.6	11,927	16.5	-14.7
2	중국	12,677	4.3	10.1	133,844	6.0	10,419	20.8	-17.8
3	ASEAN	10,404	15.0	10.1	110,828	2.4	9,686	22.8	-6.9
4	EU	7,179	6.8	21.4	75,853	8.3	6,563	7.4	-8.6
5	한국	5,051	10.1	4.6	54,622	-0.9	4,669	11.2	-7.6
6	대만	3,926	4.8	11.7	42,324	4.2	3,660	19.0	-6.8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5.1월 수입은 유가하락으로 감소

○ ‘15.1월 수입은 전월보다 4.0% 감소한 7.3조 엔

- 수입 물량은 전월 대비 0.5% 증가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의류 및 동 부속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통신기 순으로 전월에 비하여 통신기와 의류 및 동 부속품의 순위가 바뀜

- 수입 감소품목 중 유가하락으로 원유의 수입 감소폭이 24.3%로 가장 크고 이어 통신기, 액화천연가스 순
- 수입 증가품목은 의류 및 동 부속품과 반도체 전자부품

< 2015년 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4.12월			2014.1~12월		2015.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11,074	-22.0	13.5	138,766	-2.6	8,393	-40.5	-24.3
2	액화천연가스	7,971	15.6	22.9	78,499	11.2	7,846	6.5	-1.6
3	의류·동부속품	2,714	9.1	6.9	32,584	0.3	2,924	-6.1	7.7
4	반도체등 전자부품	2,507	16.5	2.9	28,717	17.4	2,648	2.0	5.6
5	통신기	2,731	22.9	-29.2	28,639	6.9	2,360	-5.3	-13.6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중국과 ASEAN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 호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4.4%로 가장 크고, 이어 한국, 미국, EU 순

< 2015년 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4.12월			2014.1~12월		2015.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7,108	6.8	-2.1	191,706	8.6	17,783	-6.9	3.9
2	ASEAN	11,219	10.1	8.9	122,492	6.6	11,534	5.7	2.8
3	EU	6,835	-2.0	0.3	81,574	6.6	6,785	-3.1	-0.7
4	미국	6,593	22.4	5.3	75,411	10.7	6,473	-1.4	-1.8
5	호주	4,892	8.6	28.6	50,864	2.2	4,675	-1.9	-4.4
8	한국	3,120	-2.8	2.7	35,307	1.1	3,012	-10.2	-3.5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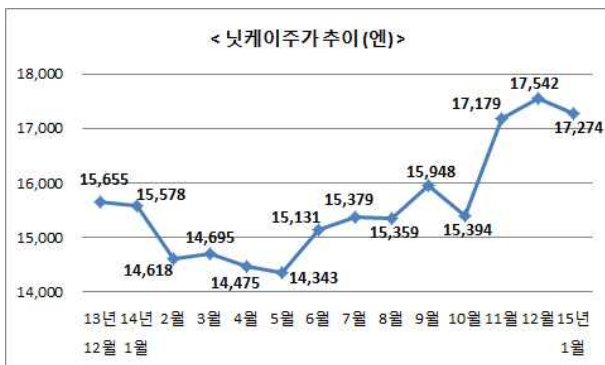
3. 엔저 지속하에 고주가 · 금리반등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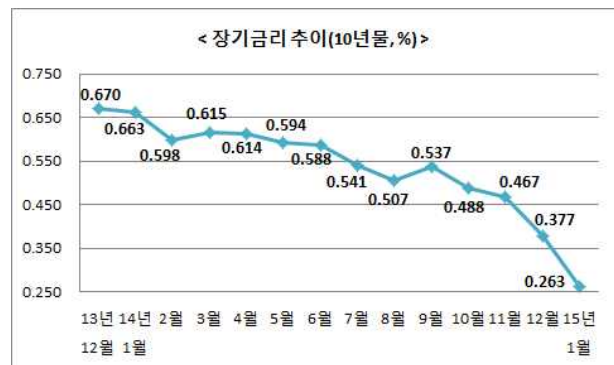
- ‘15.1월 평균 주가는 전월보다 1.5% 하락한 17,274엔
- 그러나 2015년 2월에는 일본기업들의 수익개선, 미국 주가의 상승 등으로 2월 16일 18,000엔대에 진입한 후, 2월 24일 기준 18,603엔을 기록

□ (금 리)

- ‘15.1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과 유럽의 장기금리 하락,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확대 등을 배경으로 전월보다 31.6% 하락한 0.263%
- 그러나 2월 들어 이익 확정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매각 등으로 상승, 2월12일에는 0.4%대로 상승한 후, 2월 23일 기준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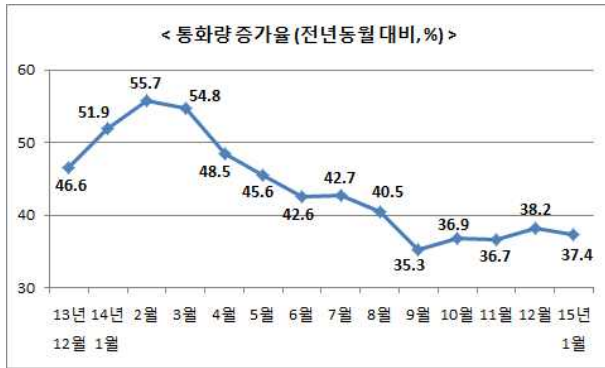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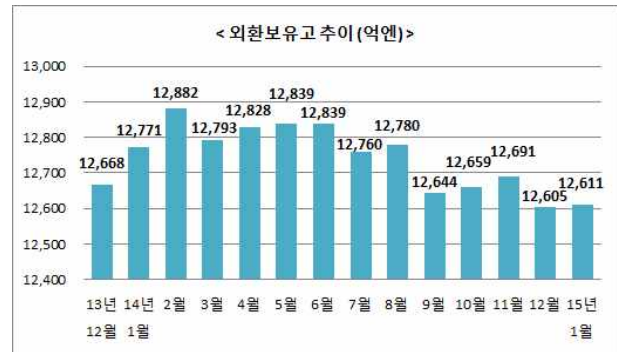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5.1월 본원통화(머니리베이스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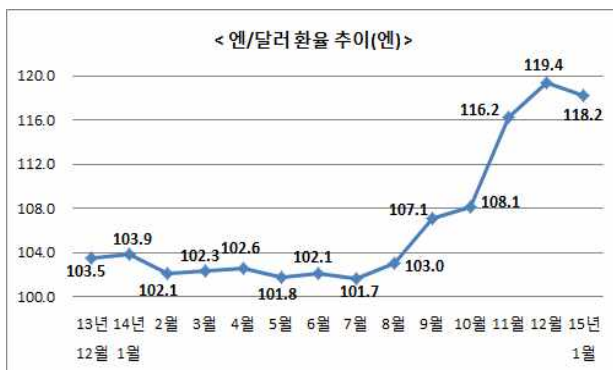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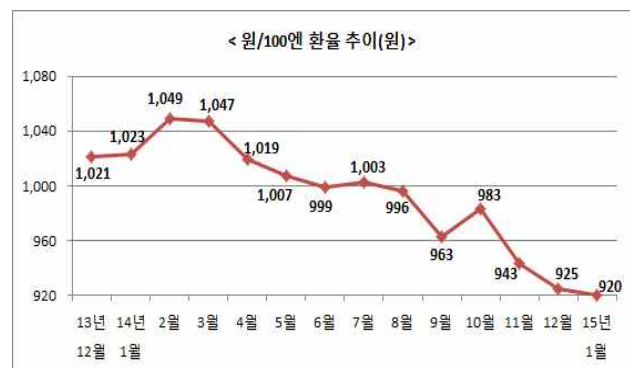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5.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보다 1.0% 하락한 118.2엔(엔고)
- 그러나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와 무역적자 확대, 미국의 경기회복 등의 요인으로 2월에는 한때 120엔대까지 상승한 후, 2월 23일 기준 119.07엔
-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일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 ‘15.1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20원으로 전월 925원에 비해 0.5%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2014년 해외직접투자 감소

□ **(동향)** 2014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2.6조 엔으로 전년대비 4.6% 감소

○ '14년 12월은 1.4조 엔으로 전월비 6.7% 감소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3	2014	201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금 액		131,946	125,929	7,828	6,392	6,907	15,159	14,552	13,570
증가율	전기비	34.9	-4.6	15.9	-18.3	8.1	119.5	-4.0	-6.7
	전년동기비	34.9	-4.6	-79.0	20.2	54.8	73.2	192.3	-22.2

자료 : 일본 재무성

□ **(지역별)** 2014년 對한국 직접투자는 3.7% 증가

○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205.4%의 큰 폭으로 증가

- 미국 3.3%, 대양주 1.2% 증가

○ 유럽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각각 16.7%, 22.1%의 큰 폭 감소

- 對 중국투자는 19.3% 감소

< 2014년 일본의 주요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2014년		2014.11월			2014.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25,939	-4.6	14,552	-4.0	192.3	13,570	-6.7	-22.2
아시아	37,617	-4.3	4,544	36.8	29.1	5,370	18.2	-36.5
중 국	7,150	-19.3	679	-23.9	20.8	445	-34.5	-32.3
한 국	3,328	3.7	271	188.3	83.1	417	53.9	-22.0
북 미	46,264	1.2	7,382	2.7	1,807.5	1,683	-77.3	-60.6
미 국	44,365	3.3	7,373	3.2	4,543.6	1,593	-79.4	-54.1
중남미	7,710	-22.1	52	-91.9	-34.2	1,300	2,400.0	-7.2
유 럽	26,310	-16.7	832	-75.7	8.2	4,081	390.5	12.4
대양주	5,963	1.2	1,690	320.4	894.1	900	-46.7	258.6
중 동	527	-	45	-2.2	-	65	44.4	333.3
아프리카	1,539	205.4	7	-95.0	-91.9	171	2342.9	297.7

자료 : 일본 재무성

□ **(특징)**

○ M&A형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증가, '13.4월~'14.3월 기간 중 521건으로 최고치 기록

○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 일본기업들의 생산거점이 소비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수출이 현지 생산거점으로 대체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최근 일본의 주가상승 요인과 전망

1. 최근 주가상승과 배경

□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

- 2015년 2월19일 닛케이평균주가가 18,264엔으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2월 23일에는 18,603엔까지 상승

□ (고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주가상승 견인)

- 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임
 - 19일 당일에도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키엔즈와 시마노 등이 주가 상승
 - 도요타자동차를 필두로, 해외에서 대형 M&A를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NC공작기계분야의 세계 정상인 파낙 등이 시가총액 10위에 랭크

□ (경기의 방파제 역할)

- 장기 디플레이션과 초엔고, 금융위기 등에 시달려온 일본기업들이 그동안 착실한 구조개혁으로 수익력을 회복
 - 풍부한 유동자금을 성장투자과 임금, 배당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경기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음

2. 고수익 요인

□ (엔저/저금리)

- 주가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업실적 개선은 현재로는 엔저와 저금리에 의한 부분이 큼

- 엔화환율은 달러당 118엔대로 15년 전에 비하여 10엔 정도 엔저
- 장기금리는 한때 0.2%를 밑도는 등 과거 최저수준을 지속

□ (경영혁신)

- 1990년대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상호보유주식을 처분하고, 현재는 해외투자자들이 일본주식의 30%를 보유하는 소위 대주주로서 일본 기업에 경영개혁을 요구
- 1998년부터의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성장전략보다 임금을 포함한 코스트 절감을 우선시해옴
- 방어형 경영을 계속해온 결과 현재 100조 엔이 이르는 유동성자금을 확보
- 토요타의 경우,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세계경기침체로 적자로 전략하고, 초엔고로 수출채산이 악화되는데 이어 2011년에는 대지진으로 서플라이체인의 대혼란을 겪음
- 위기를 극복해온 부단한 경영혁신이 최근 수익 개선의 원천임

3. 고수익의 활용과 효과

□ (설비투자)

- 파낙과 같이 일본 국내에서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음

□ (M&A)

- 수익 개선에 자신이 있는 기업들은 해외기업의 M&A 등 가일층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실행

□ (임금인상)

- 자동차와 전기 등의 대기업들은 임금인상과 함께 주주에 대한 배당도 늘림

□ (경기진작 효과)

- 설비투자 증가, 주가상승, 임금인상에 의한 소비 증가 등을 통한 경기진작
- 경기진작을 통한 생산 및 수익 증가

4. 평가와 전망

- 최근 일본의 주가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나 앞으로 엔저 등에 의존하지 않을지의 여부, 나아가 일본경제가 자율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주가 향방에 관건이 되고 있음
- 이에 고용 분야 등 소위 암반규제의 완화·철폐와 TPP교섭의 타결,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동의 환경정비를 요구하는 업계의 요구가 강함
-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활용하는 방법임
 - 해외투자가들은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을 일단락 짓고 성장 중시의 경영전환을 기대
 - 설비투자와 M&A 등에 자금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저변이 확대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동시에 임금인상에 의해 가계의 소비를 자극하는 경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음

2. 일본정부, TPP 수입한도 운용 검토

□ 배경

- 일본정부는 쇠고기·돼지고기·유제품 등 중요 농산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TPP한도 설정방안을 검토
 - 품목별로 저율관세와 무관세의 수입물량을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려 수입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임

-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교섭국들과 수입량을 경계하는 일본 국내 생산자 쌍방의 이해를 얻기 위함임

□ 주요 내용

- TPP 한도는 농산품의 품목별로 관세율과 인하기간 외에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세이프가드(S/G)와 같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관세를 인상하는 조건을 설정

① 쇠고기

- 쇠고기는 TPP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연간 50만톤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TPP한도로 하여 현행 38.5%의 관세를 인하
- 일본은 대미교섭에서 쇠고기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10% 전후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세율을 여타 참가국들에도 적용,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세율을 올려 50만 톤을 초과하면 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장치를 상정

② 돼지고기

- 돼지고기는 50만-60만 톤대가 TPP한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간 수입량 76만 톤중 TPP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만으로 60%이상을 점함
- 일본정부는 저가 돼지고기 kg당 최대 482엔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차액관세제도를 재검토하여 kg당 수십 엔의 종량세로 변경을 검토중

③ 쌀

- 쌀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국제적 합의로 최저수입량(minimum access)로서 연간 77만 톤을 무세 특별한도로 받아들이고 있음
- 대미교섭에서 주식용 쌀을 최대 5만톤 추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이것도 TPP한도로 운용하는 안을 검토

□ 전망

- TPP 한도 내에서 각국에 수출을 경합시키는 안과, 국별로 한도를 할당하는 안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TPP참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어날 공산이 큼
- 소비자들에게는 외국산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이점이 있으나, 관세율과 인하시기를 둘러싸고 참가국들과의 조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1월 대일 무역적자 축소

□ (중 합)

- ‘15.1월 대일 무역적자는 1,569백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447백만 달러 축소
 - 대일 수출은 2,263백만 달러, 대일 수입은 3,831백만 달러
- 대일무역적자 축소요인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폭이 컸기 때문임
- 대일수출의존도는 전월의 4.8%에서 5%로 높아진 반면, 대일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0.2%에서 9.6%로 낮아짐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7.3%로 전월과 같음

< 2015년 1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 달러,%) >

	2014.12월			2014.1-12월		2015.1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대일 수출	2,443	-8.3	-3.2	32,248	-7.0	2,263	-19.5	-7.4
대일 수입	4,459	-7.8	2.6	53,776	-10.4	3,831	-4.8	-14.1
무역 수지	-2,016	-157	193	-21,528	-3,839	-1,569	355	-447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5.1월 대일 수출은 전월에 비하여 7.4% 감소
 - 이 같은 감소폭은 동 기간 중 한국의 총수출감소율 8.6%보다는 적고, 일본의 수입 감소율 4%보다는 큼
- ‘15.1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석유화학제품과 수송기계, 기계요소공구, 금속광물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 수출 증가품목 중 석유화학제품의 증가폭이 7.5%로 가장 크고, 이어 기계요소공구, 수송기계 순임
- 수출 감소품목 중 전자부품의 감소폭이 19.5%로 가장 크고 이어 광물성연료, 산업용전자제품, 정밀화학제품, 농산물, 철강제품 순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12월	-8.3	-3.2	3.6	6.3	1.9	7.1
2014.1-12월	-7.0	-7.0	2.4	2.4	5.7	5.7
2015. 1월	-19.5	-7.4	-0.7	-8.6	-9.0	-4.0

< 2015년 1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 (백만 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4.12월			2014.1-12월		2015.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총계	2,443	-8.3	-3.2	32,248	-7.0	2,263	-19.5	-7.4
1	광물성연료	442	-19.3	-6.4	6,553	-22.9	371	-48.3	-16.1
2	철강제품	266	-25.1	-2.9	3,961	7.3	265	-26.1	-0.4
3	산업용전자제품	272	10.4	-2.2	2,872	-11.9	233	6.5	-14.3
4	전자부품	231	11.7	21.6	2,420	-14.3	186	-3.3	-19.5
5	석유화학제품	106	-12.5	-18.5	1,634	-8.6	114	0.8	7.5
6	정밀화학제품	122	-7.3	-5.4	1,514	2.7	113	-5.3	-7.4
7	수송기계	100	-0.9	9.9	1,273	9.6	102	-4.5	2.0
8	농산물	88	-15.6	-3.3	1,097	2.2	86	-11.0	-2.3
9	금속광물	85	9.6	-11.5	1,111	-14.6	85	3.3	0.0
10	기계요소공구·금형	74	-6.8	-12.9	1,111	14.5	77	-14.9	4.1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5.1월 대일 수입은 전월에 비하여 14.1% 감소
 - 이 같은 감소폭은 동기간 중 총수입의 감소폭 9.3%를 상회
- ‘15.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의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중전기기를 제외하고는 대일 수입이 감소

- 수입 감소품목 중 기초산업기계의 감소폭이 24.1%로 가장 크고 이어 산업용전자제품,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이 20% 이상의 큰 폭으로 감소
- 반면, 충전기기의 대일수입은 20% 증가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12월	-7.8	2.6	-0.9	6.3
2014. 1-12월	-10.4	-10.4	1.9	1.9
2015. 1월	-4.8	-14.1	-11.0	-9.3

< 2015년 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 달러, %) >

순 위	품 목 명	2014.12월			2014.1-12월		2015.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 계	4,459	-7.8	2.6	53,776	-10.4	3,831	-4.8	-14.1
1	철강제품	565	-17.0	-2.9	8,205	-9.0	527	-16.5	-6.7
2	전자부품	571	-12.7	5.7	6,353	-13.5	507	0.8	-11.2
3	석유화학제품	479	-14.0	-9.1	6,121	-9.0	398	-25.5	-17.0
4	정밀화학제품	368	-7.1	10.8	4,307	-4.1	290	-10.0	-21.2
5	정밀기계	290	48.7	-14.2	2,617	-7.8	278	70.9	-4.1
6	기초산업기계	344	-1.8	-5.0	3,649	-24.3	261	14.0	-24.1
7	플라스틱제품	230	-5.1	11.1	2,846	-12.8	199	-9.9	-13.5
8	산업용전자제품	244	-4.4	18.4	2,838	0.7	191	-4.5	-21.7
9	수송기계	234	14.8	12.0	2,533	6.7	184	15.8	-21.4
10	충전기	120	-1.7	3.4	1,556	-12.3	144	79.0	2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2014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감소

□ (동 향) ‘14.4분기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3분기 연속 증가

- ‘14.4분기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850백만 달러로 전기비 73.8% 증가하면서 1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
 - 전체 외국인 투자증가율이 6.7% 감소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수도 45.1% 증가
- 2014년 연간 일본의 대한 투자는 2,488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7.5%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 달러, %) >

	2013년		2014.1분기		2014.2분기		2014.3분기		2014.4분기		2014년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99 (-11.6)	746 (2.3)	80 (-19.2)	403 (-46.0)	72 (-10.0)	489 (21.3)	103 (45.1)	850 (73.8)	352 (-21.3)	2,488 (-7.5)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571 (-15.3)	5,062 (33.1)	583 (2.1)	5,272 (4.1)	563 (-3.4)	4,484 (-14.9)	746 (32.5)	4,185 (-6.7)	2,463 (-5.6)	19,003 (30.6)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한 · 일 기업간 협력 사례)

- 일본 도시바가 SK하이닉스와 반도체회로를 미세화화 할 수 있는 차세대노광기술을 2015년 4월부터 공동개발하기로 발표(2015.2.6.)
 - 반도체의 성능향상과 코스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실용화를 목표

□ (시사점)

- 최근 엔저국면에서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듯이, 엔저가 반드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대응이 필요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015.1월~2015.2월)

□ 국내 기관

- 『일본의 농상공 제후 촉진 지원제도와 시사점-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 제후』 산업연구원, 2015년 2월10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12&state=view&idx=50082&recom=1712&ord=0
-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5년 2월9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14060&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아베노믹스 2년 성과 진단 및 향후 전망』 KOTRA, 2015년 2월6일
http://www.globalwindow.org/gw/publishdata/GWPDRE010M.html?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U_STEP=2&ARTICLE_SE=OM#nolink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주는 의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2월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236>
- 『한일관계: 정상회담 없는 정상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2월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237>
- 『기사로 보는 2015년 한일 경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2월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237&no=43238>
- 『한국 유통산업의 도전과 과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2월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238&no=43239>
- 『일본 언론의 복합위기 돌파전략과 시사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2월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239&no=43240>
- 『일본의 로봇 신전략』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2월5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240&no=43241>
- 『2015년 일본의 주목 이슈』 LG경제연구원, 2015년 1월27일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pub/JapanInsight_2015_1_20150127142058.pdf

□ 일본 기관

- 『2015년 일본경제전망: 아베노믹스를 넘어 성장하는 일본경제』 미쯔비시UFJ리서치앤 컨설팅, 2015년 2월23일
http://www.murc.jp/thinktank/rc/quarterly/quarterly_detail/201501_81.pdf
- 『일본수출기업의 수출전략: 채산중시에서 물량확대로』 미쯔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2015년 2월20일
http://www.sc.mufg.jp/report/business_cycle/bc_report/pdf/bcr20150219.pdf
- 『일본의 인프라투자시장 규모 추계』 미쯔이스미토모트러스트 기초연구소, 2015년 2월20일
http://www.smtri.jp/report_column/report/pdf/report_20150219.pdf
- 『일본·미국·유럽·아시아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일본기계수출조합, 2015년 2월3일
http://www.jmcti.org/info/150130_press.pdf
-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중점시책 보고서』 2015년 1월30일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skkkaigi/dai20/siryou1-2.pdf>
- 『대일직접투자잔고 배증을 위하여』, 2015년 1월27일
<http://www.jetro.go.jp/jfile/report/07001920/07001920.pdf>

2. 주요 경제 일정

<2 월 실적>

일자	주요내용
2	• TPP 미일 실무자급 협의(워싱턴)
3	• 14년도 추경예산 성립
6	• 1월말 외화준비고 발표(재무성)
16	• 14년 4분기 GDP 속보치(내각부)
17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18일까지)
18	• 구로다 일본은행총재 회견
	•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 회견
	• 자동차기업 노조 춘투 노사협상 요구
19	• 사카키바라 경단련회장 기자회견
	• 1월 무역통계(재무성)
	• 2월 월례경제보고(내각부)
23	• 일-EU EPA 제9차 교섭회의(27일까지)
25	• 20세기를 뒤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기 위한 지식인 간담회(총리실)
	• 국가의 채무관리를 위한 간담회(재무성)
27	• 1월 소비자물가지수(총무성)
	• 1월 완전실업자율(총무성)
	• 1월 유효구인배율(후생노동성)

<3 월 예정>

일자	주요내용
4~7	• 한중일 FTA 교섭(서울)
11	• 동일본대지진 발생 4주년
11~12	• TPP 미-일 실무자교섭회의(워싱턴)
14	• 호쿠리쿠 신간선 개통
18~19	• 신산업무역회의(서울)